

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은, 새만금에서 - LS그룹 1조 8,400억대 투자 -

- 현 정부 들어 새만금 투자유치 신기록 행진, 총 6.6조 원 달성
- 새만금국가산단 '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' 후, 첫 대규모 투자유치
- LS그룹 전구체 생산공장 연내 착공, 신규 일자리 1,450여 개 창출

-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,402억 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한다.
-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경안)과 전라북도·군산시·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LS그룹과 체결했다고 8월 2일 밝혔다.
- 이번 투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(7. 20.)된 이후 첫 성과이다.
- LS그룹은 연내 새만금 산단 5공구(338천㎡)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,45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며, 투자는 '28년까지 1차 전구체 생산, 2차 황산메탈 생산 순으로 진행된다.

<투자 개요>

투자분야	투자금액	투자면적	투자위치	고용규모	착공시기
이차전지 소재 (전구체, 황산메탈)	1조 8,402억 원 (총 2단계)	338,928㎡	산단 5공구	1,449명	'23. 12.

- 이날 협약식에는 1차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사업인, LS-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(주)*의 '이차전지 양극소재(전구체)'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.

* LS그룹의 지주회사인 (주)LS와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회사 (주)엘엔에프가 합작 설립한 전구체 생산 신규법인으로 현재 기업 결합 중이며, LS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예정

- LS-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(주)의 투자는 80%에 달하는 전구체*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초강대국 K-배터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.
- * 전구체는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의 중간단계로, 원재료인 정련된 황산메탈(니켈·코발트·망간 등)을 혼합하여 제조
-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, 우수한 기반시설,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(유틸리티) 여건, 신속한 일괄·통합(원스톱) 서비스 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.
- LS그룹은 세계 서열 16위로 '03년 LG그룹에서 분리되어 전기, 전력, 에너지 소재 등의 분야에서 132개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이다.
- 최근에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국가 미래첨단전략 사업인 배터리·전기차·반도체 분야에도 진출해 영역을 확장 중이다.
- 협약식에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,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, 김관영 전라북도지사, 강임준 군산시장, 구자은 LS그룹 회장, 허제홍 엘엔에프 이사회위원장, 명노현 (주)LS대표이사, 최수안 엘엔에프 대표이사, 지역 국회의원, LS계열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.
-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"새만금은 현 정부 들어 비약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.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LS그룹의 투자를 환영하며,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."라면서, "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산업과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-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"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."라며, "국내 굴지의 대기업인

LS와 엘엔에프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하며, LS-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(주) 등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(메카)로 키우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강임준 군산시장은 “LS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,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산업 도약기를 맞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(메카)로 떠오르고 있다.”라며, “이번 투자 역시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과의 상생 등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LS그룹 구자은 회장은 “새만금은 우리 LS그룹의 이차전지사업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.”라면서, “비철금속분야 최고 경쟁력을 가진 LS와 양극재 선도회사인 엘엔에프가 황산니켈→전구체→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사슬(밸류체인)을 순수 국내 기술로 구축하여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 성장을 선도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(22. 5.)으로 총 31개 기업, 6조 6천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.

○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의 실적* 4배를 초과한 성과로, 창출되는 직접 일자리만 6,346개에 이른다.

* 새만금청 개청(13. 9.) 이후 '22. 4월까지 33건, 1.5조 원의 입주계약 체결

붙임 LS그룹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 개요

담당 부서	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	책임자	과 장	남궁재용 (063-733-12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미희 (063-733-1232)
담당 부서	전라북도 기업유치추진단	책임자	단 장	양선화 (063-280-2401)
		담당자	팀 장	손순이 (063-280-3237)
담당 부서	군산시 산업혁신과	책임자	과 장	이현숙 (063-454-2720)
		담당자	계 장	이길란 (063-454-2731)



붙임 LS그룹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 개요

□ **그룹 개요**

- (회장) 구자은(3대 회장)
- (그룹 현황) 재계 서열 16위, '03. LG그룹에서 분리, 산업용 전기·전자 및 소재, 에너지 분야 확장 중
 - * (자산총계) 24조 4,659억 원, (매출액) 36조 3,459억 원, (임직원) 25,000명
 - (주요 계열사) (주)LS, LS전선, LS ELECTRIC, LS MmM, LS엠트론 등

□ **투자 개요**

- (투자협약 체결) 총괄 1건, 1차 투자사업 1건
 - * 그룹차원의 포괄적 투자협약, **LS-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(주)

협약 시기	기업명	투자분야	투자금액	투자면적	고용규모	건설계획
'23.8월 (총괄)	LS그룹	이차전지소재 (전구체황산니켈)	1조8,402억원	338,928㎡ (1027만평/분양)	1,449명	'23년~'28년
'23.8월 (1차투자)	LS-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(주)	이차전지 (전구체)	1조,493억원	132,200㎡ (40,000평/분양)	759명	착공 : '23.12월 준공 : '28.12월 사업시작 : '26년

* 2차 투자사업(7,909억 원, 황산메탈)은 '23. 12월 투자협약 체결 예정

□ **투자 예정지** *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

